

김도영 1번 타자·3루수 선발로 데뷔전 치른다



김도영

KIA 개막전 라인업 윤곽

1. 김도영(3루수)
 2. 김선빈(2루수)
 3. 나성범(우익수)
 4. 최형우(지명타자)
 5. 황대인(1루수)
 6. 소크라테스(중견수)
 7. 김석환(좌익수)
 8. 한승택(포수)
 9. 박찬호(유격수)
- 선발 투수 - 양현종

오늘 SSG와 시범경기서 최종 점검

‘호랑이 군단’의 2022시즌 윤곽이 드러났다. ‘슈퍼 루키’ 김도영이 3루수로 선발 데뷔전을 치를 전망이다.

KIA 타이거즈가 28일 챔피언스필드에서 SSG 랜더스를 상대로 시범경기에 나섰다. 지난 24일 키움전에 이어 두 번째 야간 경기에서 김중국 감독은 사실상 베스트 라인업을 선보였다.

이날 김도영을 톱타자 겸 3루수로 내세운 김중국 감독은 김선빈(2루수)-나성범(우익수)-최형우(지명타자)-황대인(1루수)-소크라테스(중견수)-김석환(좌익수)-한승택(포수)-박찬호(유격수)로 라인업을 구성했다.

김 감독은 경기 전 취재진과의 자리에서 “올 시즌 개막전에 들어갈 라인업에 가깝다고 보면 될 것 같다. 포수는 내일까지 보고 결정할 생각이다”며 “주전 포수라고 해도 날마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 후반에 동점 상황이나 지고 있으면 포수 자리에 대타를 써야 하기 때문에 선발이 아니라라도 다른 한 명은 항상 출전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이름은 역시 김도영이다. 프로 첫 시범경기를 소화하고 있는 김도영은 이날 경기 전까지 37타수 17안타 0.459의 타율을 기록하면서 타격 전체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전날 한화와의 경기에서도 세 타석에서 안타를 만들지 못했던 김도영은 8회 4번째 타석에서 밀어서 안타를 만들며, 개막전 선발 자리를 점 찍었다.

김석환도 시범경기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좌익수 자리에서 첫 개막전을 준비하게 됐다.

김중국 감독은 “자신감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 그런 멘탈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입단했을 때부터 봤는데 너무 착해서 멘탈이 약했는데 군대도 다녀 오고 나이가 드니까 더 강해진 느낌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 훨씬 좋은 성적이 날 것 같고 기대도 많이 된다”고 언급했다.

황대인도 우려를 털고 쾌조의 컨디션으로 1루 자리를 선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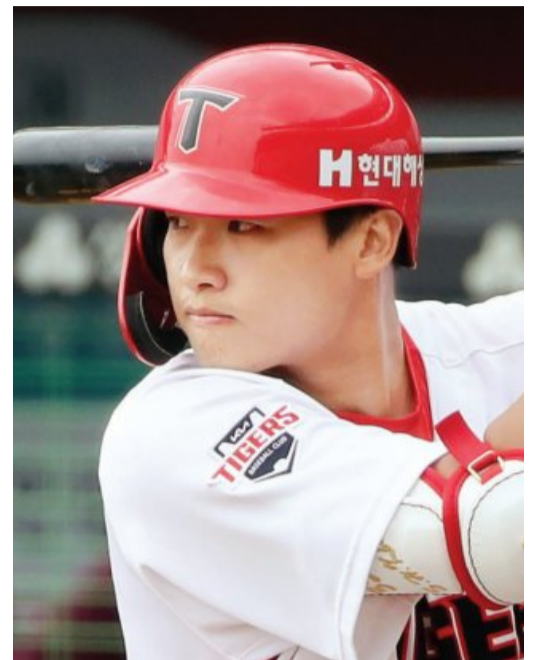
지난 18일 KT전 이후 경기에서 나서지 못했던 황대인은 27일 한화와의 경기에서 다시 타석에 섰고, 득점권 상황에서 안타와 희생플라이로 2타점을 만들며 우려를 지웠다.

김중국 감독은 “(쉬면서) 긴장감이 많이 들었을 것이다. 집중하는 모습이 좋았다”고 전날 경기에 대해 평가했다.

황대인이 정상 컨디션으로 개막을 준비하면서



나성범



김석환

KIA는 나성범-최형우-황대인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틀린업 트리오’로 공격 강화에 성공했다.

물론 변수는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남은 기간 부상도 조심해야 한다.

김중국 감독은 “(오늘 라인업이) 스타팅 라인업에 가깝지만 어떻게 될지 모른다. 확고한 주전은 앞서 말했던 4명(김선빈·나성범·최형우·소크라테스)이고 그 외에는 언제 바뀔지 모르는 것이니까 긴장감을 가지고 끝까지 해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선발진들의 개막 준비 과정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개막전 선발이 유력한 양현종이 27일 한화전을 통해 마지막 리허설을 끝내고, 놀린은 28일 동강대와의 연습경기를 통해서 최종 점검을 했다.

놀린은 6이닝 동안 96개의 공을 던지면서 2피안타 12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작구 최고 구속은 143km를 기록했고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터를 시범했다.

필승조도 28일 장현식을 시작으로 마지막 2연전에서 연투를 소화하며 점검을 마무리한다.

한편 KIA는 29일 오후 1시 SSG와 시범경기 최종전을 치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기적의 3승 ... 신생팀 ‘매운맛’ 보여줬다

광주 시 페퍼스 첫 시즌 마무리

“1세트 따기도 힘들 것” 예상 깨고 승점 11점 올리며 선전 펼쳐 즐기는 배구로 활기찬 플레이 배구 불모지 광주에 활력 불어넣어

광주 페퍼저축은행 여자배구단 AI페퍼스가 V리그 첫 향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도드람 2021-2022시즌 V리그 여자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조기종료되면서 AI페퍼스의 첫 시즌도 일찍 마무리됐다.

AI페퍼스는 지난해 9월 30일 한국 여자프로배구 7번째 구단으로 창단해 올해 처음으로 V리그에 참전했다. AI페퍼스는 3승 2패, 승점 11점을 획득해 최하위로 시즌을 마쳤다.

AI페퍼스에겐 ‘기적 같은’ 시즌이었다. 창단 당시 AI페퍼스는 시즌 ‘5승’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선전을 기대하는 목소리는 작았다. 선수 경력과 팀워크, 경험 등 모든 면에서 V리그 ‘최약체’로 꼽혔던 만큼 1승은커녕 1세트를 따는 것조차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중론이었다.

AI페퍼스는 ‘변갯불에 콩 볶듯’ 만들어진 팀이란 오명을 갖고 있었다. 페퍼저축은행이 지난해 5월 10일 광주로 신생팀 연고지를 확정짓고 뒤 단 5개월만에 창단식을 가졌고, 그 다음 달 곧장 개막전에 뛰어들어야 했다.

신생팀인데다 합을 맞출 시간도 부족했고, 선수층도 얇았다. 신인 6명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간신히 로스터를 채웠고, 평균 나이 21세로 경험도 적은데다 평균 신장 178cm로 피지컬도 밀렸다. 주전 선수도 스타 플레이어는 고사하고 타구단에서 교체 선수로 활동했던 이들이 구성됐다. 세트 박사량이 시즌 시작 전 부상으로 결장하는 등 악재도 잇따랐다.

AI페퍼스는 1라운드까 채 끝나기도 전에 기업은행을 상대로 첫 승을 거두며 매운 맛을 단단히 보여줬다. 이후 17연패 수렁에 빠져 악전고투했



AI페퍼스 선수들이 지난 1월 19일 열린 기업은행전에서 득점한 뒤 환호하고 있다.

<AI페퍼스 제공>

지만, 기적처럼 4·5라운드에서 기업은행·흥국생명을 꺾으며 3승을 기록, 예상을 뛰어넘는 ‘한 방’을 선보였다.

1997-2005년 수차례 국가대표 여자배구단 감독을 맡아 온 베테랑 김형실 감독의 리더십도 돋보였다.

김 감독은 좋은 성적만을 갈구하는 기존 프로스포츠의 공식을 버리고 신나는 배구, 즐기는 배구를 목표로 삼았다. 한 점 한 점을 소중히 하고, 실수하더라도 사과하기보다 “다시 하자”고 서로를 다독인 덕분에 선수들은 연일 이어진 패배에도 활기를 잃지 않았다.

AI페퍼스를 통해 기회를 잡은 선수들도 있었다. 이한비·박경현은 31경기에 모두 출전해 각각 262득점(공격 성공률 30.13%), 242득점(35.57%)을 올리며 주전 공격수로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 신인 박은서는 23경기 101득점(39.57%)으로 활약하며 화려하게 데뷔했고, 김

세인은 리베로로 출전해 민첩하고 센스 있는 디그로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AI페퍼스의 선전은 ‘배구 불모지’였던 광주에도 활력을 불어넣었다.

코로나19로 페퍼스타디움 전체 좌석 중 20%(600석)만을 개방했던 개막전부터 관중들이 만원을 이뤘다. 50%를 개방했던 ‘크리스마스 매치’ 때도 2430석이 수조만에 매진되는 등 열기가 뜨거웠다. 페퍼저축은행은 홈 경기 수익금을 화정 아파트 붕괴 사고 피해 가족 지원금, 지역 유소년 배구 발전 지원금 등으로 기부하며 선순환을 만들었다.

지난 1월 23일에는 광주에서 프로배구 사상 최초로 V리그 올스타전이 열렸다. 관중 2850명이 페퍼스타디움을 가득 채운 것은 물론 김연경 등 2020 도쿄올림픽 대표팀, 1976 몬트리올 올림픽 여자배구 대표팀 등이 광주에 모이면서 배구 열기를 끌어올렸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오늘 UAE전 ... “1위·무패 지켜라”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최종전

벤투호가 아랍에미리트(UAE) 원정에서 ‘아름다운 피날레’를 꿈꾼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29일 오후 10시 45분(한국시간) UAE 두바이의 알막툼 스타디움에서 UAE와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10차전을 치른다.

이번 경기는 카타르 월드컵 본선행을 위해 달려 온 긴 여정의 마무리를 짓는 최종전이다.

한국은 이란과 함께 각 조 2위까지 주어지는 월드컵 본선행 티켓을 따낸 상태다.

한국은 24일 이란과 홈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해 A조 1위(승점 23·승 2무)에 올라 있다. 이란은 승점 22(7승 1무 1패)로 뒤를 잇는다.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의 목표는 이뤘지만, 벤투호는 원정에서 UAE를 꺾고 최종예선을 조 1위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한국은 UAE전에서 지지 않으면 2010 남아공 월드컵 최종예선 이후 처음으로 ‘전 경기 무패’ 기록을 쓰게 된다.

현재 아시아 최종예선에 참가하는 12개 국가 중 패배가 없는 팀은 한국이 유일하다.

하지만 조 1위의 ‘자존심’을 지키려면 UAE전에서는 무승부가 아닌 승리가 필요하다.

이란과 승점 차가 1에 불과한 만큼, 한국이

UAE를 이기지 못하고 이란이 10차전 상대인 레바논을 꺾는다면 순위는 다시 뒤바뀔 수 있다.

UAE는 국제축구연맹(FIFA) 세계 랭킹 69위로 한국(29위)보다는 순위가 낮은 팀이다.

역대 맞대결 전적에서도 한국이 20전 13승 5무 2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10차전에서 만만치 않을 수 없는 상대다. UAE는 최종예선에서 2승 3무 4패(승점 9)를 거둬 조 3위에 랭크돼 있다.

A조 3위 팀은 B조 3위인 호주와 대륙 간 플레이오프(PO) 진출권을 놓고 대결한다.

본선 직행이 불발된 UAE의 마지막 희망은 플레이오프인데, 4위 이라크(승점 8·1승 5무 3패), 5위 레바논(승점 6·1승 3무 5패) 등이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을 이겨야 자력으로 3위를 확정할 수 있는 UAE는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최종예선에서 나온 UAE의 6골 중 3골을 책임진 골잡이 알리 말쿠트와 2골을 넣은 귀와 선수 카이우 카네두 등이 경계 대상이다.

한국은 코로나19와 부상 등으로 일부 선수가 이탈한 가운데 전력을 극대화하는 게 관건이다.

주장 손흥민(토트넘)은 대표팀에서도 역시 ‘민을맨’이다. 최종예선 4골로 득점 공동 선두를 달리는 손흥민은 득점 1위를 노려본다. 조규성의 이탈 속에 아직 최종예선 득점이 없는 황의조(보르도)의 발끝이 살아날지도 주목된다.

/연합뉴스